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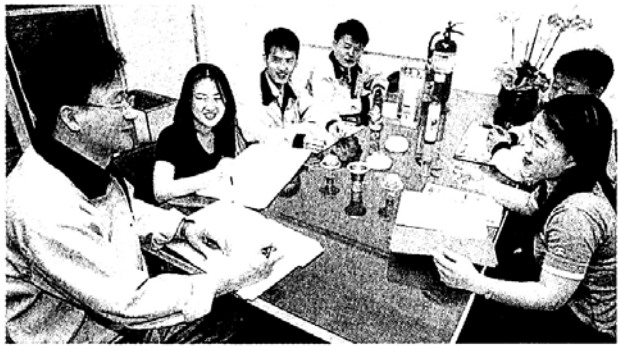
“불심으로 뭉치니 어려울때 큰힘”

‘기업을 통해 불국정토를 이룬다’는 모토로 출발해 발전을 거듭하는 회사가 있다. 1년매출 40억원인 대동소방(서울 답십리동소재)은 소방용품 제작 및 판매회사로 전국판매 1~2위를 달리고 있다. 대불련과 동국대출신이 주류를 이뤄 100% 불교신자로 구성된 대동소방은 회사이슈를 사찰순례행사도 갖고 있으며 직원법회도 준비중이다.

전직원 불자 기업 대동소방

4년만에 판매고 전국 1위 '부처님 믿음'이 가장 큰 재산

실적을 올렸다. 소방업체의 X세대로 불리는 이남재(35세)사장은 “3백만원 자본금에 만 4년이라는 짧은 경력으로 소방업계 최고판매고를 기록하자 주위에서 IMF 첫번째 희생양은 저희 회사가 될거라고 했습니다. 또 부도를 막아내고 급성장하니 뒤에 큰 힘이 나 자금력있는 사람이 도와주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갖습니다.” 이회장 부처님 믿고는 아무도 없다고 말하면서 굳이 사람을 든다면 어려울때 매일 아침 조계사에서 1백일 기도정진한 부인뿐이라고 웃었다. 신일수이사도 한국의국어대 대불련출신으로 법안정사가 창동에서 도심포교당으로 개원했을 때 청년회원으로 활동하며 안내전담을 맡아 시내 곳곳에 홍보했던 신심같은 불자다. 이사장의 뜻을 알고 대동소방에 참여해 현대와 고향을 대



◇불심으로 IMF를 극복하고 있는 대동소방은 4년의 짧은기간 동안 소방용품 판매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기업에서 일했던 경력을 맡겨 발휘하고 있다. 이사장과 신이사는 어린이날도 아들과 딸을 데리고 조계사를 찾았다. 굳이 종교를 집요하게 강요하기 보다는 자연스럽게 가감도록 하자는 취지에서였다. 또 입사시 채용조건을 불자로 하려는만큼 경주지사 김철기 유현중씨도 동국대출신으로 보경사와 백운사 신도이다. 나선주 관리부주임은

우리 모임에선

부산대불정 창립 32돌

대한불교청년회 부산지구(회장 김수현)는 17일 금강중학교에서 지도법사인 해종스님과 역대회장을 비롯한 11개 지회 2백여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32주년 기념법회 및 체육대회를 가졌다. 특히 고등학생불교연합회와 대학생불교연합회와 친선경기를 마련해 불자들의 교류와 화합의 장이 되었다.

서울구치소 염주 보시

서울구치소 불심회(회장 임장수)는 불교사주지 살조스님이 재소자교화를 위해 기증한 염주 6천여개를 전국재소자 수용시설에 택배로 전달중이다. 염주가 필요한 재소자교화시설은 서울구치소 불심회(0343-23-6107)로 연락하면 된다.

유불동 수계·매뉴 개편

유니텔 불교동호회(회장 김희정)는 13일 운영자회의를 열고 98년 전회원 수계법회 및 매뉴개편을 단행하기로 했다. 수계법회는 6월20~21일 법주사에서 갖기로 했으며, 중부방 통폐합 및 불교교리강좌와 지역도입방, 불교강좌방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불기법 전반기 연수

한국불교기법협회(회장 하준생)는 30일부터 31일까지 과산 다보수련원에서 '98 전반기연수회를 개최한다. 이번 연수회에는 김병근 문화일보 논설위원이 '불교언론 환경의 변화와 새질서'를 주제로 강연한다. (02)722-4162

수원운전기사불자회는 18일 20여대의 택시를 이용 연꽃마을 용인양로원을 방문, 경로관광을 실시했다. 20대의 택시에 태워 수원용주사와 사도세자릉 등을 참배하고 돌아왔다.



한국불교금강선원(이사장 한정섭)은 17일 불교방송국 3층 대법당에서 제3차 축역 한국대장경 출판 기념회 및 춘계특강을 실시했다. 이 자리에는 덕암스님(前 태고종 종장) 월주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을 비롯 김영태교수(前 동국대 불교대학장) 등 3백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기념법회에 이어 전국 10개 지방교육원 개설에 따른 교육원장 임명장 수여식과 말교에 대한 특강이 있었다. <영예기자=한수갑>



생명나눔실천회(이사장 법장)는 20일 서울 타워호텔에서 의료·법조·언론·학계 등 각 분야 전문위원단을 구성, 1차 모임을 가졌다. 이날 모임에서는 이사장 법장, 중앙승가대학교 수 본각스님과 박선영·박경준 동국대학교, 최재천 변호사, 권대영 원당진단방사선과 원장, 이경호 대한불교강생법회 회장, 송위지 외국어대학교, 이은은 중앙일보 전문위원 등 15명이 참석했다.



서울시립 근로자 합숙소 개소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사장 월주)은 20일 오전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94-31번지에 '시립 영등포 근로자 합숙소' 개소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 합숙소 소장 능관(사회부장)스님과 강덕기 서울시장 직대, 김두기 영등포구청장 등 4백여명이 참석했다. 월주스님은 “고통받는 이웃을 돕는 것은 불자들의 의무”라며 “IMF사태를 계기로 자비행을 더욱 실천해 복받을 기쁨을 씨앗을 뿌리자”고 당부했다.



군포복지관 '매화효도잔치' 열어

군포종합사회복지관(관장 수현스님)은 15일 목회예담부에서 군포시 생활보호대상 노인 2백50명과 경로식당 및 군포광명의원 이용 노인 1백명을 초청, 매화효도잔치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연꽃마을 이사장 각현, 법회사 주지 백혜스님과 조원국 군포시장, 유병직 군포상공회의소 소장 등 5백여명이 참석했다.

PC경전방 “산사강원 부럽지 않아요”

하이텔 불교경전연구모임 그룹별 공부 자유롭게 묻고 답하며 부처님 가르침 배워

하이텔통신 작은모임에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회원상호간 대화와 토론하며 올바른 실천행을 꿈꾸는 불교경전연구모임(회장 방용덕)이 있다. 30여명의 회원을 갖고 있는 이 연구모임은 아합부(원시경정동) 반야부(금강경 원각정) 화엄경 범어경 법화경 등 경전들을 소그룹으로 나눠 자유롭게



하이텔 회원들이 세강병원 영안실을 방문 영가천도사의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반야를 향하는 배, 그 배가 있다면 누구든 타고자 할 것이다. 불자라면 누구나 지혜를 구족하고 싶고 성불을 향한 길을 닦고 싶지는 않다. 육바라밀의 수행덕목

반야선

“이웃과 함께 피안 향해 갑니다”

28가족 회원... 96년 4월 창립 부상장병·행려병자·고아등 돌봐

발원하며 활동하고 있다. 96년 4월에 열여덟 가족들이 모여 창립 때 이제는 스물여덟 가족이 한배를 타고 있다. 가족이라는 말에서 도 갈 수 있듯이 반야선은 가족회원으로 구성된다. 부부동반으로 경전공부와 봉사활동도 펼친다. 불법을 전하는 것보다는 다른 이와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으로 반야선의 활동은 시작되었다. 국군통합병원내 모공사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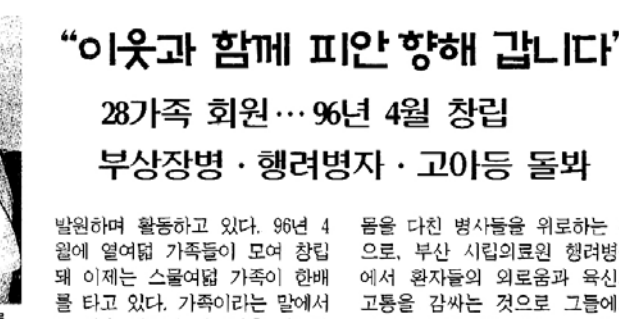
들을 다친 병자들을 위로하는 것으로, 부산 시립의료원 행려병동에서 환자들의 외로움과 육신의 고통을 감싸는 것으로 그들에게 다가간다. 불법을 말하기 전에 그저 환한 웃음과 따뜻한 손으로 그들의 손을 맞잡는 것이 우선이라고 믿고 있다. 매주 금요일 천명일거사의 <수능업경>을 강의를 듣고 종단에 구애없이 법사를 초청, 법회를

천미희 기자

교사연, 청소년포교지 만든다

초·중고생 대상 1만부 배포

초중고등학생 대상의 포교지가 만들어진다. 전국교사불자연합회(회장 임원숙)는 청소년 포교지(제호는 미정)를 다음달 중 1만부를 제작, 전국 학교에 배포할 계획이다. 21쪽 분량 포켓북 형식의 포교지는 초등학교용과 중·고등학교용 2종으로 제작되며, 청소년 인성교육을 위주로 간단한 불교교리를 곁들인다. 임원숙회장은 “교리를 많이 언급하기보다는 청소년들의 고민을 담아 불교에 우호감을 갖도록 하겠다”며 “내년부터는 계간 발행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교사불자연합회는 이와 함께 교사불자회 조직활성화를 위한 홍보지도 펴낼 계획이다.



반야선 회원들이 세강병원 영안실을 방문 영가천도사의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을 노 삼아 성불을 향해 가는 배, 바로 반야선(회장 설정수)이다. 반야선 회원들은 그들이 만든 조그마한 반야선이 거선이 되어 온 중생을 거두어 태울 수 있길

분 도심속의 명당·사찰부지 양

■ 명당·사찰부지 위치도

교통편

- 구파발 지하철 3호선까지 승용차 10분거리
- 의정부 지하철역 10분 거리
- 서울 시내버스 156번 동려
- 불명동-의정부간 시내버스 34번 동려
- 교현선 기차
- 워낙시 선 승주 유원지
- 장흥국민관광지

경기도 양주군 장흥면 교현리 447-6

☎ 0351)826-3665

● 推薦 합니다 ●

千年宗風 麻谷寺의 大申興을 發願하며

佛祖의 慧命을 받들기 위해 修行精進에 盡力하시는 麻谷寺 本·末寺 住持스님, 麻谷寺 在籍스님 그리고 地域에 緣故가 계신 大德스님 여러분께 삼가 아뢰옵니다.

元老 正影스님의 門徒인 小衲들은 末寺住持스님들과 함께 三千年 宗風을 지켜주신 大德스님과 各寺 住持스님 그리고 四部大衆 여러분께 捐告하고 仰望합니다. 스님들의 高見과 크신 願力으로 魯鈍한 比丘 楞嚴을 今番 第6教區 本寺 麻谷寺 住持選舉에 삼가 推薦하오니 格外히 指導해 주시고 聲援해 주십시오.

總體的 力量을 다하여 麻谷寺가 發展될 수 있도록 하고, 進取的이고 未來指向的인 큰 일꾼이 되어 麻谷寺를 修行衲子의 最高修行道場으로 만들겠습니다.

■ 門徒 : 종담성원보성
운봉진허월곡
중하 (무순)